

2005 KGSS 연구원보 현장감독 지침서

KGSS 연구단은 공동연구자 4명, 전임연구원 5명, 연구원보 13명, 그리고 13개의 현지조사팀으로 이루어지며, 각 현지조사팀은 협력교수 1명과 연구원보 1명 그리고 조사원 8-12명으로 구성된다. 연구원보는 담당지역의 표집확인 및 현지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는 현지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조사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연구원보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맡게 될 임무는 다음의 7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사전검사(pre-test)의 면접조사 수행

사전조사의 주목적은 설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 오류를 찾아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KGSS 질문들이 각각 묻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묻고 있는지, 어법에 문제가 없는지, 응답 범주들이 상호배타적이고 포괄적인지, 질문들의 순서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GSS에서 연구원보로 하여금 직접 사전조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설문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질문의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본조사시 조사원을 지도하려면 사전에 KGSS가 어떤 조사인가를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표본틀 작성

KGSS의 표본은 전국의 주민등록가구들을 표집틀로 해서 다단계지역층화확률표집법에 의해 추출된 2,000 가구에서 생일이 가장 빠른 18세 이상 가구원이다.

연구원보는 선정된 반/리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반/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를 일련 번호에 따라서 작성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 표본틀을 근거로 최종 표본가구를 선정하게 되므로, 연구원보 여러분이 정확한 표본틀을 확보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행정자치부나, 통계청, 동사무소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세대주소는 다세대 가구나, 재개발 등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표본틀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원보들이 해당 반/리를 방문하여 직접 해당 주소에 가구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면 한 가구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는 정확한 표본 추출 뿐 아니라 조사원이 방문하였을 경우에 혼돈을 미연에 방지해 주고, 연구원보 여러분이 미리 지역을 방문해 봄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 접근방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파악해서 조사원

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원활한 본조사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조사원 선발

연구원보가 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일은 협력 교수와 상의하여 조사 담당 시·도의 조사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조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회조사방법을 수강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회학 전공 2, 3, 4 학년으로서 사회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로 조사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과학 전공자로 충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대면접촉을 통해 충원함으로써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4. 현지조사 사전계획 세우기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조사원들과 함께 어느 지역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 이 때 조사원들이 응답자를 찾아내어서 협조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언제 응답자를 찾아내고, 언제 면접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시간계획을 조사원들과 미리 잘 검토해서 정해 두어야 한다. 연구원보들은 정해진 현지조사 일정에 따라 조사원들과 계획을 세울 것이 요구된다.

5. 조사원 교육

연구원보는 조사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서 교육 과정 중에 조사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의 교육은 조사 전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연구원보는 조사원과 본 연구소 사이에서 중간담당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사원 교육 뿐 아니라 자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6. 현지조사 관리와 감독

연구원보는 조사원들이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모니터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연구원보와 조사원은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한주간의 계획과 지난주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연구원보들은 이것을 종합하여 상세한 진행상황을 본 연구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보는 특정한 케이스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전 지역에서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컨대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조사원이 있다면, 그 조사지역을 다른 조사원이 도와주도록 조정해 주는 등의 유연성도 발휘해야 한다. 때때로 다른 조사원의 접근법이 성공할 수도 있다. 또한 조사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 활동 등에 대해 항상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조사원들이 응답거부 문제를 호소해 올 것에 대비해 연구원보들도 응답거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응답자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는가를 사전에 잘 연구해야 한다. 응답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표본이 있다면, 다른 면접 조사원에게 그 표본을 재할당하거나 연구원보가 직접 방문을 시도할 수도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기존의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응답거부유형을 일반화해서 몇 가지 종류의 응답거부에 대한 대비용 편지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도 있으나, 절대적이지는 않으므로 나름대로의 방안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

7. 설문지 타당성 검사 및 보완조사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에 대해서는 바로 타당성 검사(validation)를 실시해야 한다. 연구원보는 조사원들이 조사를 마치는 즉시 검토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잘못된 자료가 계속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조사원이 제출한 모든 설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빠진 문항이 없는지, 응답은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 경우에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만일 표본대체 등의 의심이 가는 사례가 발견되면, 서베이리서치센터와 상의를 하고 조사된 설문지는 모두 폐기하고 재조사를 거치게 될 것이다. 설문지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본 연구소로 보내면 된다.